

“국회를 바꾸자” 광주서 2020총선 시민모임 출범

뜻 같이하는 개별 시민들 자발적 참여로 운영...現 100명

좋은 후보 선정·당선 운동...국회의원 특권 폐지·개혁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에서 좋은 후보 선정과 당선을 위한 총선 시민모임이 출범했다.
‘국회를 바꾸자 2020 총선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인 총선 시민운동에 돌입했다.
시민모임은 단체 중심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개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20여명이 기획위원으로 준비모임 등 활동을 해왔고 현재까지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출범 선언문에서 “뜨거웠던 국민들의 염원이 촛불 혁명을 통해 부도덕한 청와대 권력을 바꿨다”며 “하지만 매서

운 칼바람과 한파를 견디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울림은 국회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희망을 제시해야 할 정치가 오려 개혁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며 “21대 총선은 국회를 바꾸어 촛불 민심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느냐, 아니면 적폐 세력의 부활이나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

는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정치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품질과 유통 경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열된 상품만 보고 골라 반품이 안 되는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의 집단적 실천을 통해 좋은 후보를 선정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앞으로 좋은 후보 선정과 당선 운동을 벌인다. 시민모임의 정책질서에 답변한 후보를 대상으로 각 후보들의 철학, 능력과 지질, 정치 소신과 지역에 대한 고민, 이행계획 등을 평가해 좋은 후보를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추천한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정치개혁 운동도 진행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제정운동을 전개한다.
20대 총선 투표율 58%보다 최소 5% 이상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유권자 참여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에서 좋은 후보 선정과 당선을 위한 ‘국회를 바꾸자 2020 총선 시민모임’이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이게 광주냐’라는 질문에 ‘이것이 바로 정치다’ ‘이것이 바로 광주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2020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손혜원 “목포총선 영향줄 것”...박지원 5선 도전 복병되나

“민주당 후보 도울 것” 밝혀
차과 치열한 ‘접전’ 예상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목포지역 총선은 박 의원과 손 의원이 지원하는 민주당 후보 간의 ‘한판 승부’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12월 (뉴스1)이 기

획보도한 ‘손혜원 투기논란 1년’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한 뒤 “저는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며 “목포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자신이 1년 전 ‘목포 총선에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 말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향후 목포 국회의원 선거에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손 의원은 또 목포선거구에 출마한 배종호 민주당 예비후보가 손 의원이 자신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링크한 글에서는 “민주당 경선에 통과하신 분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선 전 예비후보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라고 썼다.
이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 중 경선을 통과해 정식 후보가 된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어서 각 당의 총선구도가 짜이면 손 의원이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손 의원은 지난해 1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박 의원을 상대할 정치인이 눈에 띌면 돕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찾아들었으나 박지원 의원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면 손 의원은 간헐적으로 박 의원을 겨냥했다.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하는 박 의원 기사를 소개하고 “2015년, 딱 이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문재인 당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두 분에 대한 음해와 비방으로 호남 총선판을 흔들더니 장악했다”고 썼다.
이어 “다시 그 작전으로 5선의원의 꿈을 이루려 하시나 본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호남분들이 그 뻔한 전략에 이연에도 속을까요?”라고 적었다.
지난해 11월에도 ‘손혜원TV’에서 “대안신당 인사들은 박지원 의원이 따라와 짜증난다 하더라”고 하는 등 박 의원을 공격했다.
현재 목포는 ‘정치 9단’의 높은 벽 4선의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지역 언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등 강세를 보여 민주당의 대항마가 누가 되느냐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매일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2월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자대결에서 박지원 25%, 윤소하 18.3%, 김원이 12.4%, 우기종 9.4%, 김홍걸 8.6%, 배종호 6.2%, 김한창 1.1%로 나왔다.
뉴스1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광주M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월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박지원 28.8%, 윤소하 17.7%, 김원이 8.2%, 우기종 7.4%, 배종호 5.9%, 김한창 1.2%의 지지율을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민주당은 김원이, 배종호, 우기종 예비후보간 오차범위 내 3파전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부각되고 있어 득표력이 관심사다.
이에 따라 박 의원과 민주당 후보, 윤소하 의원간 3자 구도가 형성되고, 손 의원이 움직임을 보이면 목포지역 총선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손 의원이 행보를 보이면 크든 작든 시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선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포=김도현 기자

전남 면적, 1년간 축구장 228개만큼 넓어졌다

160만㎡ 늘어난 1만2345㎢로
전라남도의 면적이 한 해 동안 축구장 228개만큼 넓어졌다.
13일 도에 따르면 전남 면적은 지난해보다 160만㎡ 늘어난 1만2345㎢로 최종 확정됐다.
2019년 전남지역 평균 개별공시지가(1만3999원/㎡)로 환산하면 169억원 규모의 자산이 늘어난 셈이다.
여주시 울촌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40만㎡, 완도군 완도항 및 고흥군 발포항 공유수면 매립 신규 등록 등으로 20만㎡가 늘었다.
시·군별 면적은 해남, 순천, 고흥, 화순, 보성 순으로 크고, 필지 수는 해남, 고흥, 나주, 순천, 신안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넓다.
기업도시 개발, 도로 등 SOC 확충, 해외 및 수도권기업의 투자유치 등으로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도로 등 지목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임야, 농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허성은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